

미얀마 인프라 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김문영 / 대한무역진흥공사 지역조사부

세계 최빈국인 미얀마에서는, 1988년에 새로이 들어선 군사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경제 전환과 자본, 기술 상의 취약점 등의 보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매우 취약한 인프라 산업은 정치적 불안정, 경제 체제 조치, 외환제도 상의 문제와 함께 기업의 미얀마 진출의 주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는 투자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 최후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 해제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 정부의 적극적인 98년 ASEAN 가입 노력 등 미얀마를 둘러싼 여건의 호전으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 자원 등 미얀마가 지니고 있는 투자 상의 이점이 크게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일본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진출시 시장 선점의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한발 앞선 대응이 요구된다.

머리말 - 투자 환경 일반

미얀마는 우리에게선 버마란 이름으로 친숙하게 다가오는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에 위치한 면적 67만 8,000 km², 인구 4,300만 명의 불교 국가이다. 2차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와 일본군간의 이야기를 다룬 전쟁 영화 “콰이강의 다리”의 주 배경이기도 하였고, 83년 10월의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과 88년의 유혈 민주화 항쟁, 그리고 지난 7월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 연금 해제 등으로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1947년 독립 후 풍부한 천연 자원과 벼의 3모작이 가능할 정도의 천혜의 기후 조건으로 동남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으나, 오늘의 현실은 1인당 국민 소득 200 달러 내외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60년대 이후 취해진 Newin 군사 정권의 사회주의적 고립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88년 민주화의 봄을 유혈 진압하고 등장한 현 군사 정부(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한국의 60년대 초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비슷한 성격)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경제 체제 조치로 인한 외환 부족과 자본, 기술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의 투자 여건을 장·단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장점으로 양질의 저임 노동력과 노조 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20~30%로 추정되고 있는 실업률, 불교 국가 전통에서 오는 온순한 국민성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노동운동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또한 既진출 국내 봉제 공장¹⁾의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월 20~40 美달러 정도로 동남아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단순 공정의 경우 고용 후 3 개월이면 국내 노동자의 90% 이상의 생산성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천연 자원 개발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원유, 석탄, 주석, 보석, 목재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6 년간의 고립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자에 의한 자원 분야 진출이 전무한 반면, 미얀마 정부는 부족한 외환 조달의 수단으로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세번째로 공장 입주 부지 및 공업 용수가

풍부한 점인데, 정부 소유 공장중 50% 정도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어 국영 기업 인수를 통한 진출이 용이하며, 국제항인 양곤 시내 주변의 공장 용지도 풍부한 상태이다. 또한 열대 기후적 특성으로 공업 용수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 진출 상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① 최근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 연금 해제를 계기로 현 SLORC 군사 정부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간의 충돌 및 소수 민족 독립 문제의 돌출 가능성 등 정치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②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현재 차관 및 원조를 비롯한 미얀마 내로의 외환 유입이 차단되고 있고, 일부 섬유 품목의 경우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 일방적인 쿼타 규제를 받고 있는 점, ③ 극심한 외환 부족으로 현재 암시장 환율이 공식 환율의 15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미얀마 내수를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 구득한 현지 Kyat화²⁾의 달러로의 환전이 불가능한 환율 상의 문제, ④ 전력, 항만, 도로,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얀마 투자 상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미얀마의

1) 既진출 봉제 업체의 경우 對美 Non Quota 품목이거나 유럽 시장을 주판로로 하고 있음.

2) 현재 공식 환율은 US\$: Kyat = 1 : 6 정도이나 암시장 환율은 1 : 100을 넘고 있는데, Kyat화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생산량의 10% 정도를 미얀마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임. 외환 부족으로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나 송금 상에 애로가 있음.

사회간접자본 현황 및 전망을 증점적으로 살펴본다.

■ 미얀마의 사회간접자본 현황

전력, 에너지, 공업 용수

현재 전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국영 공장은 물론, 일반 사용분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특정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제한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얀마 전력은 크게 분류하여 에너지부 산하의 미얀마 전력청(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국경 및 소수 민족 개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경 지역 전력 및 개인용 생산 전력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93/94년(93. 4. 1~ 94. 3. 31)중 미얀마의 전력 생산량은 30억 6,100만 Kwh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중 수력이 50.2%, 수증기 1.0%, 가스 터빈 46.7%, 디젤 2.1%의 분야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발전 능력 상의 제한 외에도 전력 손실률이 34%에 달하고 있고 중간 변전소에서 각 가정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손실률이 전체 발전량의 약 2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SAIDAN 수력발전소 등 2004~5년까지 13 개의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한 자금 상의 문제로

이러한 목표치 달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미얀마는 전력 수요 및 향후 전력 수요 증가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수요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계자들의 의견상 현재 전력 생산량의 5~10 배에 달하는 전력 수요가 있어 최소한 7~8 년은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既진출 업체의 경우, 자체 발전 시설을 보유하거나 미얀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송전선 본선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전력 확보 문제로 고심하고 있어 진출 예정 기업의 경우도 전력 확보와 관련된 입지 선정 및 효과적인 對정부 협상이 진출시 성공적인 운영의 관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족한 발전 시설을 확충키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에 따라 발전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도 검토해 볼 분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나, BOT 조건이 대부분이므로 대규모 자금의 투입과 20~30여 년에 걸친 장기적인 수익 관점이 필요한 반면,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이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기름 등 여타 에너지 분야도 원유 생산 및 외환의 부족으로 현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물과 보석의 나라”로 불리어 지듯이 공업 용수 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양곤 시내에서 주변의 공장 용지가 풍부

하여 장기 임차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³⁾

항만, 해운

미얀마의 주요 항구로는 양곤항을 비롯하여 Bassein, Moulmaein, Sitte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항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항구는 양곤항이다. 그러나 接岸 시설 등 관련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로 외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항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라와디 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대규모 토사의 축적으로 정기적인 준설 작업이 필요한 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1만 톤 이상 배의 접안이 불가능하며 20 피트 컨테이너용 크레인 하역 시설이 2 대 있으나, 그 중 1 대가 고장으로 컨테이너의 처리는 사실상 힘든 상태이다. 미얀마 정부의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 시설의 부족 외에도 해운 상의 문제도 원부자재의 미얀마내 반입 및 완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⁴⁾ 현재 서울-미얀마간 한국 국적 선사의 취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미얀마 국영 선사(Five Star Line)가 매월 1 회(결항의 경우도 있음) 한국-고베-미얀마간 정기 항로를 운영하고 있어 델리버리상 일본에 비해 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운임도 여타 선사에 비해 30~40% 정도 비싼 상황이다. 따라서 既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미얀마 정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Feed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3~4 개사가 참여하고 있어 거의 매일 싱가포르-양곤간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 도로, 철도, 운송 수단

항공의 경우도 양곤 시내 북쪽 19 km에 위치한 Mingaladon Airport에 미얀마 항공을 비롯하여 타이항공, 방글라데시항공, AEROFLOT, Air China, Silk Airs(싱가폴) 등이 취항하고 있으나, 운항 편수의 부족으로 우리 기업인의 경우 주로 방콕 및 싱가포르 특히, 방콕 경유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내 국내선은 미얀마 항공이 북부 Mandalay, Pagan을 1 일 1 회 운항하고 있다.

육로의 경우 총연장 1만 9,963 마일의 국도 및 2,700 마일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 및 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양곤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원부자재 및 완제품 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도는 국영 미얀마 철도공사에 의해 운영되

4) 현재 韓-미얀마간 교역은 94년 기준으로 수출 5,700만 美달러, 수입 1,100만 美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수출의 대부분은 섬유 등 既진출 우리 기업의 원부자재용임.

3) 토지의 소유는 미얀마 투자법상 금지되어 있음.

고 있으나 기관차를 비롯,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운행 불능 상태의 차량이 많고 연착이나 운행 취소가 빈번하다.

현재 미얀마에는 약 13만 대(군용 차량 제외)의 각종 차량 및 1만여 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 차량이 대부분(차령 40년 이상의 것도 있음)이며, 택시도 소형 픽업이 주류로 관광객용으로 일반 승용차를 개조하여 쓰고 있으나 대부분 일제 중고차여서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이다. 현재 미얀마내 승용차의 약 95% 이상을 일제 중고차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96년 미얀마 관광의 해"를 계기로 96년 3월까지 중고 자동차의 면세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어 국산 중고차 수출 확대의 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우의 경우 금년 중 자동차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 소형차 위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곤 시내의 버스 운행 상황을 보면 차량이 낡고 불결하며 항상 만원이어서 외국인의 경우, 현지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대부분 호텔에서 택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신 및 우편제도

통신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고 해외 회선

이 적어, 한국과의 국제선 연결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용 요금도 국내 요금의 2~3 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일례로 양곤-서울간 Trunk Call 요금은 3 분당 16 美달러, Person Call은 27 美달러 수준이며, 시내 전화의 경우도 호텔, 공항, 병원, 관공서 등 일부 공공 건물에 한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전의 부족으로 거의 사용이 힘든 상태이다. DHL을 통한 우편물 서비스는 가능한데 요금은 양곤-서울간 kg당 110 美달러로 비싼 편이다.⁵⁾

호텔, 숙박 시설

호텔 및 숙박 시설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다만 미얀마 정부는 부족한 외환 조달 수단으로서의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96년을 "미얀마 방문의 해"로 설정, 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외자에 의한 호텔 신축 붐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양곤 시내에 외자 기업에 의한 호텔 4~5 개가 9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여관은 미얀마 현지인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태이다. 참고로 大

5) 현지 환율은 공식 환율과 이보다 15 배 이상 비싼 비공식 환율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 공공 요금은 반드시 공식 환율에 의거한 달러로 지불해야 함.

宇의 경우, 현지 호텔 건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부지 사용과 관련된 미얀마 정부와의 이견으로 동 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對미얀마 진출시 유의 사항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제재 조치, 외환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미얀마 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한국 기업의 對미얀마 진출을 선도하고 있는 大宇 관련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이 양곤항 주변에 위치해

있는 이유도 이러한 SOC 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⁶⁾ 따라서 대규모 투자 및 운송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에도 원부자재 및 완제품 수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출 상의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베트남에 못지않은 투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최후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수지 여사 연금 해제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고, 미얀마 정부도 98년 ASEAN 가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등 미얀마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 자원 등 미얀마가 지니고 있는 투자 상의 이점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얀마는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그동안 일본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진출시 시장 선점의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한 발 앞선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표 1> 국가별 對미얀마 투자 현황
(95년 2월말 현재)

(단위: 건, 백만 달러)

순위 및 국가	건수	금액
1. 싱가포르	23	293.35
2. 태국	23	264.61
3. 홍콩	16	63.44
4. 미국	10	203.19
5. 영국	10	55.51
6. 한국	9	60.59
7. 말레이시아	7	69.57
8. 일본	5	101.14
9. 중국	4	5.50
10. 프랑스	2	1,045.00
11. 기타	10	215.73
총계	119	264.61

자료: FIC(외국인투자위원회) 인가 기준.

6) 95년 6월 말 현재 우리 기업의 對미얀마 진출은 허가 기준으로 15 건, 1,173만 9,000 美달러, 투자 기준으로 11건, 989만 4,000 美달러 임(한국은행, 해외투자현지법인 현황).